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61. 용과 성도의 전쟁

2014. 03. 02.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하여 자세히 살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 용과 성도들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 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2:10~12]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쳤습니다. 참소는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참소를 합니까?

답: 계12:10에 참소(讒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테고르”인데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카티고르”의 발음을 적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카티고르”는 랍비들이 마귀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남을 헐뜯어 없애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바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 따지면 성도들을 비난하고 고소할 조건이 많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저지른 이런 허물 저런 허물을 들추면서 고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참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허물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들추면서 고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밤낮이라 말은 쉬지 않고 라는 뜻이기 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소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롬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붉은

용으로 표상된 사단은 성도를 참조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일을 잘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참조자를 꼼짝 못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조거리가 없어졌지요. 성도들은 사단이 공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시하면 사단은 결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양의 피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2:14,15]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서를 다 도말하고 제하여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참조할거리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계12:11에는 어린양의 피로 참조하는 자를 이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들을 참조할거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군요.(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입니까? 의문의 율법입니까?

답: 좋은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의문의 율법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입니다. 어떤 주석에 이렇게 썼더군요. “의문에서 쓴 증서’는 ‘규례나 율법적인 계명을 쓴 증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율법’을 의미한다. 율법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죄의 결과를 규정함으로 대가를 치러 형벌을 받아야 함을 선고하여서 인간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괴롭히는 율법을 무효화시키셨다. 바울은 율법의 폐지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1) ‘도말하시고’의 헬라어 ‘엑살레이프사스’는 문자적으로 ‘문질러서 지우다’라는 의미로 증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두 지우고 새롭게 출발함을 뜻한다. (2)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의 헬라어 ‘에르켄 에크 투 메수 프로셀로사스 아우토 토 스타우로’는 문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사 제하여 버리시고’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여 율법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하여 버렸다는 뜻이라고 바로잡았는데, 그것은 잘했지만, 의문의 쓴 증서를 율법으로 설명한 것은 바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는 “케이르그라프”인데요, (1) 고소장 (2) 자술서 (3) 채무증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 문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채무증서이지요. 채무를 지고 갚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채무증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쓰고 서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 죄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서 제하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폐하고 제하여 버린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죄의 증서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의 피로 이길 수 있는 이유이지요.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구절들을 다 율법을 폐했다는 설명에 동원합니다. 물론 넓게 생각하면 앞에 설명한 말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소용없어졌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도들이 일상생활 중에 허물진 것들이 허물인줄 아는 근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은 항상 있습니다. 골로새의 이 말씀은 하

나님의 율법을 폐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사단의 참소에 당황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허물을 고백하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보증을 다시 얻게 되겠군요.

답: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사단은 철저히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공로를 제시하면 우리는 승리하는데, 11절을 읽어봅시다.

[계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승리의 이유를 제시했지요.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승리는 부활로 확증이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빌3:10~12]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바울의 고백을 알겠지요.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한다고 했습니다. 12절은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던 그 당시 현재 아직 부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잡혔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잡으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열망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사단의 세력의 핍박에 죽기까지 하겠지만 부활에 참여할 때 승리가 확정된 것을 보고 감사할 것입니다.

4. 그렇군요. 성도들이 승리한 것은 예수님의 피와 그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였기 때문이군요. 그리고 그 승리는 부활로 확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참소를 설명하면서 승리까지 말씀하셨는데,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구절 앞의 내용을 건너뛴 것 같습니다.

답: 이제 다시 그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지요.

[계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능력이 나라이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는데, 이것은 24장로들의 외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형제들”이라는 표현에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형제라고 한 곳이 성경에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형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지요. 천만천사들이나 네 생물이 성도들을 우리 형제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쫓겨나서 하늘에 열썬거리지도 못하게 된 것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자격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하늘로 올려간 구원받은 성도들인 24장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 소리의 내용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조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조하던 자가 쫓겨났고”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미 살펴본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예수님의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지요. 거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지요. 다음 구절에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일까요? 계12:10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것처럼 이 땅 지구에서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면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마 12:28을 보면 같은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셨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성령의 역사로 마귀가 쫓겨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계12:10의 내용에 대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 같네요. 결국 10절 말씀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구원사업이 성취되었다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성도들의 승리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업의 성취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친 것이지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주의 승리이시고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5. 그러면 목사님, 11절은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이제 12절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답: 그렇습니다. 12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

거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천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천사들만이 아닙니다. 우주 세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 존재들도 포함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다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지구 이외의 우주에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엡3:14,15에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한 말씀에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미가엘과 처음 다투기 전에 우주 각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 삼위에 대하여 교묘하게 악선전을 했지요. 이것을 유다서에는 유리라는 별이라고 표현했지요.(13절)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욥38:7에도 지구를 창조할 때에 찬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이런 세계에 떠돌이처럼 다니면서 참소했는데, 미가엘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 쫓겨서 땅에 왔지만 아담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지구의 장자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나들면서 참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후에 완전히 쫓겨나서 이제 하늘에는 발을 붙일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의 참소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6.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구를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늘에 전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 것이 지구에는 화가 되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래도 하늘에 들락거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철저히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분풀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언제 존재를 완전히 상실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의 멸절, 히2:14의 말씀대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껏 분풀이는 하는데,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역사와 일곱 인의 역사와 일곱 나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입체적으로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12장부터는 세상에 교회, 인, 나팔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 가장 분명한 사실을 12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도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활동이 허락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소리쳤지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마8:29) 이 말에는 때가 이르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사단에게 속아서 그 결국을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7. 그렇군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맥이 빠질 텐데 사단은 지치지도 않나보지요? 악착같이 성도를 괴롭히고 있으니까요.(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간 동안 할 것 다하자는 생각이지요.) 그러면 12절까지 내용은 자세히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을 이야기 하지요.

답: 다음은 13절이지요. 14절까지 읽어봅시다.

[계12:13,14]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낮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12절에 이어서 이 세상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교회에 대하여 사단이 핍박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계시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11장까지 계시한 사건들 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마침내는 횃불 같이 타는 별,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에 군림해서 진리를 쫓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변질시킨 모든 일의 근원을 계시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교회를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1:2에는 성전 밖 마당이라고 했고, 다시 거룩한 성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두 증인이 베풀고 입을 예언한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사용된 연대 예언이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 기간들을 동일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7년 대 환난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다니엘 9:27에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개인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주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고, 그 견해 자체가 계시록이 가르쳐준 것과 다르지요. 1:19에서 본 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하여서 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보던 그 시대부터 역사의 종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이 지구의 역사적 진행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것인데, 미래주의는 일곱 교회는 요한이 있을 때에 있는 일, 곧 이제 있는 일에 해당되고, 장차 될 일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과 후에 될 일 사이에는 아무런 역사 진행에 대한 예언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회의 리베라 신부의 해석입니다. 그것은 개혁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해석한 것인데 그것을 개신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자체에 기록된 대로 요한 때로부터 신천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 9:27의 한 이레를 7년으로 해석하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 곧 1260일인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3년 반으로 해석하니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단9:27의 한 이레도 그냥 7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7년으로 해석하고 1260일은 그대로 1260일로 보니 해석의 균형을 잃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변질시킬 것을 다 아시고 참 교회가 광야의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실 것을 나태는 말씀입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서는 자주 말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 기간은 모든 핍박 기간 중에도 특별한 기간입니다. 변질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진리를 짓밟고 핍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진리 교회에는 특별한 보호 기간이 되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어떤 뜻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요. 핍박 기간이 보호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역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당시 요셉은 그런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길이 하나님의 보시는 요셉이 걸어갈 최선의 길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지요. “창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요셉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한 이유를 깨달은 것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백성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보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양육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출19:4, 신32:10,11, 사40:31, 63:9의 말씀의 사상을 사용한 것이지요.

[출19:4]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32:10,11]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사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63: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 말씀들은 독수리 날개가 보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것 같이 진리 교회를 핍박의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긴 기간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의 기간입니다. 진리가 멸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9.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사단의 모든 성질이 온 우주에 다 들어나도록 오래 참으시면서 사단이 활동할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보호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원과 권세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어린양의 피와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승리한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 중에 기뻐하면 감사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